

目 錄 科 規 則

南 承 晁

(成均館大學校圖書館)

.....<目 次>.....

序 論

- 1. 獨逸系目錄規則과 英美目錄規則
- 2. 目錄規則의 國際的 統一運動
- 3. 歐美의 目錄
- 4. 日本의 目錄
- 5. 韓國의 目錄

結 論

序 論

圖書館에 蓄積된 資料中에서 利用者가 要求하는 資料를 提供시킴에 있어 目錄이 그 媒介體가 됨은 周知의 事實이다.

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圖書館目錄의 概念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보나 目錄은 圖書의 歷史와 起源을 같이 한다. 圖書라고 불리울 수 있는 어떤 形態의 記錄類가 存在하면서 부터 같이 存在했다①는 것은 이러한 事實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의 目錄이 大衆化되고 그 技術이 科學的 對象으로서 進展을 보인 것은 不過 今世紀를 前後하여 비롯된 것이다. 其間 實로 긴 歷史를 통해 圖書館技術에 對한 社會的 要請은 一部 特殊層에 局限되었고 적어도 社會問題로 擡頭되지는 못한 것이었다.

文化的 發達, 學問의 專門化와 大衆教育의 一般化에 隨伴한 出版物의 激增에서 學者와 大衆은 施設로서의 圖書館을 依存치 않으면 研究, 調查가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變遷에 原因을 두고 圖書館은 無限히 蒐集되는 資料의 運用에 目錄等의 技術을 奉仕에 適應시켜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圖書의 體系化를 爲한 보다 더 組織的인 分類技術의 研究, 이의 廣範한 試用과 더불어 目錄技術의 研究結果로서 프로시아目錄規則(Instruktionen für die Alphabetischen Katalog der Perussischen Bibliotheken und für die Preussischen Gesamtkatalog), 이를 改作

(1890年) 刊行한 Linderfelt의 折衷카드 目錄規則(Eclectic card Catalog Rules), 1939년에 刊行되어 Anglo-Saxon 圖書館界에 큰 比重과 影響을 준 Panizzi 等編의 大英博物館圖書館目錄規則, 1876년에 初版을 가진 Cutter의 辭典體 目錄規則(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等 目錄技術에 關聯한 活潑한 學問的 研究는 時期上大端히 가까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地域, 言語上의 特殊한 與件이 原因된 獨逸系 目錄規則의 歐羅巴의 支配에 相對하여 美國의 概念을 基底로 한 英美目錄規則(Anglo-American Code)이 1877年 美國圖書館協會(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目錄法委員會에서 作成이 始作되어 1908年 刊行을 보았다.

이 A.L.A.의 目錄規則은 그 自體의 優秀性에 依해 當時 各界의 圖書館界에 큰 影響을 주었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이 規則도 構成上 論理의 不合理, 定義의 不備, 包括性 等 許多한 缺點에 批判이 加해지고 드디어 國際性에 따른 보다 더 效果的인 構成, 標目, 用語定義, 其他의 記入事項에 이르기까지 廣範히 改正하는 運動으로서 具體化되었다.

1932年 目錄規則 改正準備委員會 (A sub-committee to be in charge of the revision)는 ALA의 理事會決議에 따라 設置되었고 英國圖書館協會(British Library Association)의 協調下에 上記한바 各 分野에 對한 追補, 擴張, 改善研究를 始作했다.

이러한 目錄規則 研究는 目錄規則改正委員會(Catalog Code Revised Committee)에서 目錄·分類部會(Division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의 1949年 改正版에 이르기까지 繼續된 것이다.

1. 獨逸系目錄規則과 英美目錄規則

目錄規則이란 基本記入의 標目的 選定, 記述의 範圍와 副出記入, 參照等에 記載되는 事項 및 方法, 編成에 必要한 配列方法을 規定한 것이다. 이러한 規則은 內的 性格上 獨逸系와 英美系로 區分됨을 볼 수 있다.

前者는 獨逸系 國家群인 中部歐羅巴를 中心으로 하

는 獨逸, Austria, Swiss, Holland 等이 目錄法上의 指導의 原理를 프로시아目錄規則에 依據한데서 因由한다. 內的 差異의 特徵은 前者는 團體出版物에는 團體名을 著名標目에 使用치 아니하고 書名標目を 한다. 反面 後者인 英美目錄法에서는 團體도 著者記入에 使用한다는 立場이 全然 다른 것이다.

獨逸系目錄法은 獨逸語를 驅使하는 國家들에게는 地域的인 與件, 言語學上의 諸原則과 調和를 갖는 點, 獨逸人이 갖는 學問의 徹底性에 愛着을 주었다.

프로시아目錄規則의 完壁性과 理論의 一貫性은 固執되고 英美目錄法에 있어서의 團體著者에 關한 規則의 複雜性과 多岐性은 批判의 對象이 되었으며 이러한 狀態는 兩者로 하여금 오랜期間 論爭의 對象이 되게 했다.

그러나 漸次 英美目錄法의 長點, 即 團體著者記入과 無著者名記入取扱의 보다 큰 有用性은 國際的으로 認定이 되어 갔고, 決定的인 影響을 준 것은 1931년에 初版刊行한 Vatican Code 에 있는 것이다.

第2次大戰後에 이르러서는 獨逸은 스스로의 目錄規則에 批判이 行해지고 改訂案試圖에 對한 論議가 일어났다.

1954年 Bremen 市서 開催된 獨逸圖書館員會議(Verein Deutscher Bibliothekare)서는 上述問題가 中心議題로서 上程된 바 있었다. 또한 Roloff 는 1959年「獨逸目錄法의 60周年回顧」란 그의 論文에서 獨逸圖書館은 獨逸目錄法을 改正하거나 또는 아주 버려야 될 段階라고 斷言하기에 이르렀다.

2. 目錄規則의 國際的 統一運動

目錄規則에 있어 獨逸系目錄法과 英美目錄法의 根本的인 相違를 解決하고 보다 더 效率的인 國際的 基準을 갖고자 歐美의 圖書館界는 活動을 가졌고 漸次 이 에 큰 期待를 갖게 되었다. 全世界의 主된 目錄規則 19種에 對한 國際的 標準化란 案件을 두고 1939年 7月 Holland 에서 國際圖書館委員會(International Library Committee)의 統一目錄規則小委員會(Subcommittee on Uniform Catalogue Rules)가 開催되었고 이어 Yugoslavia 의 Zagreb 市서 國際圖書館協會聯盟 第22回會議서도 各種 目錄法의 國際的 統一을 爲한 決議가 있었다. 最近에 이르러는 I.F.L.A.(國際圖書館協會聯盟) 國際目錄法會議가 53個國 및 12個 國際團體代表의 參席裡에 佛蘭西 Paris 서 1961年 10月 開催되었다. 여기서 標目 및 記入等에 對한 原則이 決議되고 各國은 早速히 이 原則에 立脚한 必要한 處置를 갖도록 促求된 것이다.

目錄의 보다 더 完壁한 國際化를 爲한 努力은 앞으로 도 I.F.L.A 를 中心하여 繼續될 것이다.

3. 歐美의 目錄

① 冊子目錄

먼저 Card 目錄의 內容規定에 크게 影響을 준 歐美各國의 冊子型印刷目錄을 살펴본다.

英國의 18世紀 以前의 圖書目錄은 時代的으로 보아 多種多樣하다. 即 Bibliographical Society, Stationers' Company, British Museum, Bent, W. 等の 目錄을 볼 수 있다. 19世紀 初期에서 中頃에 이르러 London Catalogue of Books, British Catalogue of Books, 이에 代身하여 刊行된 English Catalogue 및 Whitaker의 目錄等을 볼 수 있다. 이들의 基本記入은 姓(名)—書名, 冊數, 크기, 頁數, 定價, (叢書名), 出版者, 出版月, 年의 順으로 記入되고 共著者, 書名 및 件名의 副記入이 있다.

美國에서는 Roorbach의 目錄이 1820年에서 1860年間 發刊되었고 Kelly의 目錄은 1861年에서 1870年間에, 그後 Publishers' Weekly와 더불어 H.W. Wilson Co.의 目錄이 1898年 부터 Cumulative Book Index와 United States Catalog로 題名되어 刊行되고 있다. 이 C.B.I.는 美國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의 Card 번호가 記載되었으며 Card註文의 案內가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標題紙 本位로 記入하고, 著者, 書名, 件名을 ABC順으로 排列한 辭典體目錄이다. 基本記入은 姓, 名, 生(및 歿)年, 書名(叢書名) 版, 冊數, 크기, 頁數, 定價, 出版年, 出版者의 順으로 되어 있다.

獨逸에서도 Leipzig에서 刊行한 Karl Georg's Schlagwort-Katalog (Bd. 1-7; 1883~1913, 件名의 ABC順目錄), Heinsius의 Allgemeine Bücher-Lexikon (Bd. 1-19; 1828-1892, 標題紙本位로 記入한 著者名 基本記入目錄으로 ABC順目錄), Hinrichs Katalog, Börsenverein 出版의 Deutsches Bücherverzeichnis (Bd. 1-15 1911~1932, 著者를 標目으로한 ABC順目錄으로서 件名索引이 되었음) 등이 있다.

佛蘭西의 目錄은 1940年 以後는 Lorenz 創刊의 目錄이 있으나, 거슬러 올라 15世紀 以後의 것으로서 Brunet, Georgi의 目錄이 있고 Quérard의 La France littéraire (1827-64刊 12冊), La littérature française contemporaine(1842-57刊 6冊)의 著者目錄이 18世紀 및 19世紀前半의 것을 收錄하고 있고 Catalogue général de la librairie française가 파리에서 刊行되었으며 Bibliographie de la France等の 著者目錄이 있다.

目錄記述에 있어 英美獨佛의 基本記入을 보면 British Museum의 General Catalogue of Printed Books (1881-1905年刊)는 姓(名), 職業, 書名, 頁數(또는 冊數) 出版名, 出版地, 出版年, 크기, [叢書名].

U.S. Library of Congress의 Printed Catalog Cards는 姓, 名, 生(및 歿)年, 書名, 出版地, 出版社, 出版年, 頁數, 크기, (叢書名), Preussische Staatsbibliothek의 Gesamtkatalog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는 姓, 名, 職業, 著자가 처음 出版한 年度: 書名, 冊數—出版地: 出版者, 出版年, 頁數, 크기 (叢書名), Bibliotheque Nationale의 Catalogue général des livres imprimés (Auteurs)는 姓(名), 職業—書名—出版地, 出版者, 出版年, 크기, 頁數 (또는 冊數) (叢書名) 등으로 相當한 差異를 볼수 있는 것이다.

② 카드目錄

美國은 國際規格의 Unit Card 인 카드目錄으로서 基本, 副出, 主題記入을 하고 있음이 支配的④이다. 또한 目錄은 所藏資料에 適切한 主題의 接近이 容易하고, 編成에 있어 辭典體目錄인 單一體系(Monograph System)를 理想的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目錄이라든 一般의 辭典體目錄을 뜻한다. 個別目錄으로서 編成된 著者, 書名, 件名目錄等은 여기서 分割된 것으로 보고 分割目錄(divided catalog)이라 부른다. 大學 및 特殊한 圖書館을 除外하고 中小의 公共, 學術, 學校圖書館에서는 辭典體目錄만을 가졌다. 分類目錄 不必要性의 理由는 全開架制度를 거진 따르고 있는 圖書館이 索引의 役割을 하는 件名目錄이 辭典體目錄中에 組織되었으면 利用에 支障이 없고 分類目錄을 別途로 갖는다는 것은 重複이 된다는 見解가 支配的인 것이다. 分類目錄은 極히 少數의 大圖書館이 갖고 있음에 不過하다.

英國의 圖書館中 大多數는 카드目錄의 特徵인 Flexible 한 點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公共圖書館, 專門圖書館에 辭典體目錄도 相當히 普及되고 있는 反面, Birmingham 公共圖書館等과 같은 少數의 圖書館은 冊子目錄을 使用하는 곳도 있다. 이들의 冊子目錄使用의 理由는 面積과 價格上의 經濟性, 檢索의 容易한 利點等에 固執을 두고 있는 것이다.

歐羅巴는 카드目錄이 決定的으로 支配하고 있다. 多數의 舊圖書館이 冊子目錄을 갖고 있으나 現今 20年前부터 始作을 본 모든 圖書館目錄은 國際標準化된 카드目錄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目錄의 編成에 있어서는 一般의 著者·書名·主題目錄等의 多樣性에 執着되고 美國과 같은 單一目錄體系와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即 特殊한 藏書를 爲한 補助的인 目錄이 區分取扱되는 故로 主題目錄은 全藏書를 總括치 못하고, 여기서 發生되는 利用者의 相異된 問答에 適切한 奉仕가 困難하다는 點으로서 目錄의 多樣性있는 編成에 贊意를 두고 있는 것이다.

Scandinavia 諸國은 辭典體目錄이 公共圖書館의 領域

을 支配한다고는 하나 少數라고 한다.

分類目錄과 主題目錄組織의 數의 分布는 國家 및 地方的인 特色으로서 相違한바 있으나 近間의 狀況에 依하면 비슷한 比率를 보이고 있다. 獨逸, Austria, Holland의 學術圖書館, 西獨의 圖書館은 分類目錄의 効用性을 높이 評價하여 大部分 作成한다는 것이다.

4. 日本의 目錄

日本은 封建的인 國民性으로 因해 오랜 期間中 近代圖書館의 發達은 크게 沮害되었었다. 明治維新의 文化는 他時代에 比하면 高度의 水準으로서 評價되나 主로 西歐文明의 移植程度에 不過했다.

日本의 近代圖書館 및 圖書館學의 啓蒙期는 1923年頃(大正 12年)의 近代圖書館 建設啓蒙運動에서 發見되었다. 目錄法에 있어서는 日本文庫協會가 1893年(明治26年)制定한 「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의 改正版인 「和漢書目錄編纂概則 1910年(明治43年)」이 主體로서 何等의 變化를 갖지 못했다⑤.

歐美의 指導的인 目錄法은 和漢圖書에 關한 條項이 全無하고 보면 東洋의 圖書館에 適應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日本은 A.L.A.의 目錄規則(1908)을 事實上 基礎로 하고 其他의 優秀한 目錄法 即 프로세인, 바티칸等을 參考해서 和漢書目錄法 制定을 爲한 研究가 始作된 것이다. 美國의 目錄研究에 比해 半世紀가 늦은 셈이다.

昭和年代에 이르러 前記 和漢書 目錄編纂規則의 不充分性이 再檢討되고 目錄法 研究는 活潑한 움직임을 보였다. 昭和4年(1929年)에는 A.L.A. 規則(1908)이 翻譯되어 「標準洋書目錄法」으로 出版되고, 日本圖書館協會는 昭和5年 委員會를 設置 昭和7년에는 和漢書 圖書目錄法案이 나타났고, 帝大圖書館協議會에서는 昭和3年 和漢書目錄規則을 만들었다.

青年圖書館員聯盟은 1929年(昭和4年)에 A.L.A. 目錄規則을 基礎해서 「日本目錄規則(N.C.R.)」을 制定했고 이것은 1951년에 A.L.A.의 新規則(1949年) 및 L.C.圖書館 記述目錄規則(1949年)을 參考하여 「日本目錄規則 1952年版」을 改正制定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主로 和漢書目錄記入을 爲해 適用되어 온 것이다.

日本은 無著者名 古典이 많음을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過去의 圖書取扱은 著者보다 書名을 重要視하는 傾向이 慣習化 된듯하다. 目錄法上 基本記入은 書名이 되었다. 이러한 傳統은 A.L.A. 目錄法에 따른 著者記入의 轉換에 際에 相當한 論議의 對象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舊來의 書名本記入形式의 目錄을 全般的으로 更新하고, 著者目錄을 作成해 온 것은 近代化된 A.L.

A.의 英美目錄法을 導入한데 比뿐만。同志社 大學 같은데도 1935년에 이르러서야 新時代의 圖書館技術로서 舊態依然했던 狀態를 脫皮 技術革新을 하기 始作했다^㉔고 圖書館發達史에서 言及하고 있음을 본다.

1961年 I.F.L.A.國際目錄法會議에 對處키 爲해 第一回目錄法研究者全國大會가 同年 東京서 開催되었고 上記 國際會議서 採擇된 著者, 書名目錄에 있어서의 標目 및 記入等의 選擇과 形式에 適用될 諸原則에 適應시켜 第2回目錄法研究者全國會議의 結果 N.C.R.(1952年版)의 改訂版이 刊行되었으며 이 目錄規則은 繼續的인 研究, 審議를 거듭했고 1963年版(草案), 1964年版(案)에 이어 國際의 原則에 性格을 둔 和漢書, 洋書를 共히 處理할 수 있는 標準目錄規則으로서 1965年版(247p)의 刊行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現在 日本의 圖書館目錄도 組織과 編成에 多樣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1963年度 全國圖書館大會 整理技術部會에서 調査한 集計^㉕를 參考引用한다.

① 事務用目錄

事務用目錄으로서 基本目錄만을 가진 圖書館이

63.5%, 基本目錄과 書架目錄을 가진 곳이 19.6%였다. 이 比率은 全國의 1,253個 各種 圖書館의 集計에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事務用目錄의 種類는 藏書가 많은데 比例되는 것이다. 即 公共의 4萬冊未滿의 圖書館은 2種以上 9.9%, 大學의 5萬冊未滿은 21.6%, 短大의 13.5%, 縣立 47%, 公共의 4~24萬冊은 30%, 大學의 5萬冊以上은 44.2%로 나타나고 있다.

② 閱覽用目錄

利用者를 爲해 作成되는 이 目錄의 種類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이 集計는 便宜上 個別方式과 辭典體目錄方式으로 區分하고 있다.

著者·書名·分類의 3種을 모두 作成하고 있는데가 各種 圖書館을 通해 30.6%로서 第一 많다. 이와같이 日本의 圖書館은 目錄組織에 있어 著者·書名·分類目錄이 그 主體를 形成하고 있으며 想像外로 主題目錄을 作成하는데가 少數임을 본다.

主題目錄의 作成에 있어 公共과 大學은 거의 同率로 나타나고 있다.

1 9 6 4 年 度 調 査									
館 種	種 類	著 者 名	書 名	著 者 名 · 書 名	分 類	主 題	辭 書 體	其 他	館 數
公 共		182	224	34	304	52	27	20	485
		37.5%	46.2%	7%	62.6%	10.7%	5.6%	4.1%	
大 學		350	287	59	394	16	35	17	
		74.5%	61%	12.6%	83.8%	3.4%	7.5%	3.6%	

上記表에서 볼 수 있는 特徵은 分類目錄의 比重이다. 著者, 書名目錄은 다음 順位로 나타나고 主題目錄의 普及은 辭典體와 合해도 겨우 全體의 14.3%에 不過하다.

分類目錄을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에 對한 分類目錄 分出作業狀況은 公共圖書館 304館에서 ㉑하는 館이 64(22.7%) ㉒ 하지 않는 館이 206(67.8%), 大學圖書館의 境遇 ㉑ 191(48.5%), ㉒ 177(45%)로서 나타나고 있다. 即 公共圖書館은 그 1/3程度, 大學圖書館은 半數程度의 比率로 分類目錄의 分出作業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辭典體目錄과 兼해 主題目錄을 作成하고 있는 公共, 大學의 130個館을 對象으로 한 參照目錄有無의 調査에는 大學圖書館보다 公共圖書館이 이러한 作業에 있어 仔細함을 볼 수 있었다.

A. 和漢書, 逐刊物에 慣用되는 規則^㉓은

①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日本目錄規則 1952年版

東京, 1955, 78p.

② 同上

逐次刊行物目錄規則草案

東京, 1960, 5p.

等이다. 然而나 改正規則의 刊行을 봄으로써 앞으로의 圖書館은 和漢書, 洋書 共히 適用될 수 있는 다음의 規則이 利用될 것이다.

③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日本目錄規則 1965年版

東京, 1965, 247p.

B. 西洋書의 目錄規則으로서

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nd ed. Chicago, 1949, 256p.

② U.S.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 1949, 141p.

등이 있다.

5. 韓國의 目錄

日政下の 우리의 圖書館이란 日本의 그것과 同一한 狀態였고 解放을 契機로 해서 既存의 圖書館運營은 우리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圖書館의 管理·運營을 爲한 技術은 實로 荒無地의 狀態로서 이의 普及은 切迫한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當時 總督府圖書館의 李在郁, 朴奉石氏 등이 中心되어 國立朝鮮圖書館學校가 1946年 設立된 것이 韓國圖書館界서 가진 圖書館技術普及의 嚆矢가 된 것이다.

그러나 近代의인 圖書館學의 概念이 導入되고 韓國의 圖書館發展에 劃期的 轉換을 보인 것은 1957年 美國教育使節團의 Peabody Team 과 延世大가 共同實施한 韓國圖書館學校의 設置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有數의 大學에서도 이 方面에 關한 正規學科가 設置되었고 아울러 圖書館法의 公布로 말미암아 圖書館技術의 研究는 漸次 正常的인 軌道에서 發展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것이다.

現在 目錄은 館種 및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相當한 差異는 있으나 著者名·書名·主題名·分類目錄이 利用에 提供되고 있다. 圖書館技術의 導入이 日淺함에 따라 初期에는 技術의으로 相當한 亂脈을 보였다. 이러한 影響은 現在까지도 圖書館 運營에 支障을 주고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1948年의 朴奉石編 朝鮮東書編目規則, 高在昶編 圖書目錄法, 朴熙永編 東書目錄規定草案等과 日本目錄規則, A.L.A.規則 등의 混用은 統一性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韓國의 目錄法問題는 館界의 關心事였다. 우리의 圖書는 形態, 書誌의 傳統에서 보아 目錄法上 無視할 수 없는 特殊한 事項이 許多하다. 適用에 疎忽치 않고, 國際的原則에 準據되는 目錄規則이 必要했다.

韓國圖書館協會는 技術分委로 하여금 1962年 韓國目錄規則制定에 着手하게 하였고 이들은 目錄規則全體의 構成을 二大分하여 「標目的 選定」「標目的 形式」을 前半部로 하고 「記述目錄規則」과 「目錄의 構成」을 後半部로 하여 1962년에는 前半部를 마련하고 1963년에는 後半部와 前年度分을 再檢討한 後 全體의으로 完成시키기로 하였으며 豫定대로 1964年初에 上梓 廣布했다⑥.

이 韓國目錄規則制定에 있어 第一次의인 基礎資料가 된 것은 A.L.A. 目錄規則 1949年版 및 이의 追加改訂版과 第二次 資料를 바티칸圖書館目錄規則 1948年版,

그리고 第三次 資料로서 朴奉石編 東書編目規則 1948年版, 第四次 資料로서 日本目錄規則 1952年版이 參考되었다⑦.

그러나 韓國 目錄規則은 目錄者 및 研究者의 利用面으로 보아 밝혀야 될 全體的인 內容의 說明, 補助的인 諸表가 缺如 되었으며 記述의 簡略性에 依해 實質的인 利用에 許多한 難點을 주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는 이러한 問題點의 解決을 爲해 增補版 刊行을 서둘르고 있다.

東洋書의 主題目錄을 爲해서는 李載喆編인 「주제명 포목포(498 p.)」가 延世大에서 1961년에 出刊되었다. 이 標目表는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 제7, 8판의 범위를 기초로 해서 편찬된 것이나 現在까지 修正, 增補는 되지 않고 있다.

西洋書의 境遇 大部分의 圖書館에서는 目錄規則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使用하고 있다⑧.

①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nd ed. Chicago, A.L.A. c1949, 265p.

② U.S.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 1949, 141p.

主題目錄에는

① L.C. Subject heading used in the Dictionary Catalogs of the Library of Congress. 1957, 1357p.

② Frick, Bertha Margaret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 1954, 589p.

結 論

어떤 圖書館이건 大衆에게 奉仕한다는 機能으로 圖書館自體의 性格을 規定하는 以上 目錄은 圖書館에서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作成에 先行하여 用意周到한 目錄計劃이 樹立되어야 된다.

圖書館도 規模의 大小 및 館種에 따라 奉仕하는 內容도 樣相을 달리하는 것이다. 各者의 奉仕機能에 알맞는 目錄의 編成과 適正한 記述에는 充分한 事前配慮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大圖書館과 비슷한 目錄組織을 小圖書館이 갖는다는 記述에 있어서도 不必要할 程度로 複雜性을 띠는 것은 再考의 餘地가 充分한 것이다. 目錄作業은 許多한 時間과 費用, 努力을 要하는 것이다. 目錄의 價値性에만 置重해서 効用의 範圍를 忘却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人口의 增加, 敎育의 擴張, 技術의 發達과 함께 圖書館은 增加됨은 當然한 所致다.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境遇만 보더라도 圖書館法이 通過된 後 1963年度의 259個館이 64년에 950館, 65年度 3月現在로 1,422館이나 되었다.

이러한 學校圖書館에서 보더라도 目錄의 種類, 記述은 原則에 逸脫치 않는 範圍에서 實際에 있어 되도록 簡素化됨이 期待되는 것이다.

圖書館目錄은 書誌學的인 具體性은 實質的으로 要求되는 않는다. 簡略한 目錄이나 圖書館의 資料가 充分히 活用되면 되는 것이다.

目錄의 國際化에 따른 技術革新은 目錄의 大量生産을 可能하게 하고 企業的인 面에서도 새로운 樣相을 던져 주고 있다. 印刷카드의 境遇 그 自體가 지닌 缺點 即 製作·供給의 遲延性, 注文購入해야 된다는 問題點은 있으나 이것의 採用으로 因해 標目的 決定, 著者事項, 分類의 調査, 副出等과 目錄作成勞力의 經濟化는 이룩되며, 整理事務의 能率化는 期待가 可能하다.

目錄의 一般의 理論은 現時點에서 볼 때 普遍화된

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目錄技術에 關한 諸問題도 目錄者와 더불어 多角度로 再檢討될 時期가 머지 않아 올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參考引用文獻〉

- (1) Hessel, Alfred: A History of Libraries p.198
- (2) 圖書館界 Vol.7 No.3 p.83
- (3) A.L.A. Bulletin, 1960 No.3
- (4) Library Quarterly Vol. 36 No. 1. 1964.
The Catalog in European Libraries
- (5) 圖書館雜誌 Vol.50 No.1 p.4
- (6) 同志社大學圖書館學會紀要 Vol.1
- (7) 現代의 圖書館 Vol.3 No.3 p.146
- (8) 專門圖書館協會編 資料管理ガイドブック p.133
- (9) 國會圖書館報 Vol.2 No.3 p.5
- (10) 韓國目錄規則, 報告
- (11) 圖協月報 Vol.1 No.1 p.20
- (12) 韓國의 圖書館, 1965
- (13) 整理技術テキスト p.37

(39面에서 繼續)

任鍾淳先生(延世大 圖書館 司書長)이 맡아 주신 非圖書資料야 말로 本格的인 大學講義式 講義法이었다.

노트에다 깨알같이 草案을 잠은 研究調査記錄인 講義案을 들고 나와서 開講劈頭부터 印刷體 글씨로 짹짹히 黑板에다 베껴 내려가면서 차분히 說明을 加해나가는 手法인데 잠시 숨힐 틈도 주질 않는 것 같은 氣分이었다.

沈着하시고 內容이 充實한 빈틈없는 講義여서 亦是 敬服을 當하지 않을 수 없었다.

華麗하고 才致스러운 面은 없었으나 그 대신 漏落이나 疎忽이 없는 淸澈한 講義인 것이다.

實力을 느끼게 하는 講義라면 아마 이런식의 講義를 말할 것이다.

任先生은 워낙 工夫를 많이 하시는 분이 틀림없었다.

事實 ամ만 20日間の 短期講習에 나오는 講義라 할지라도 先生 自身이 着實한 工夫도 없이 또한 別 準備도 없이 氣分나는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上擧되어야 할 殊로 안다.

先生이 不誠實하면 무엇보다도 受講生들이 義憤을 느끼게 된다.

또한 어떤 悔辱感마저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貴重한 時間을 틈타서 멀리 濟州道에서까지 올라오

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熱意를 보아서도 講師되시는 분들은 着實한 準備를 해 주시는게 禮儀일 줄안다.

좋은 紐帶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講習을 통해서 우리 受講生들이 얻은 附隨的 所得이 있었는데, 各處에서도 各級 圖書館의 同志들과 서로 知面이 되고 또한 同期生으로서의 親密感和 紐帶를 맺을 수 있었다는 點이다.

20日間の 그 지루하였던 強行軍의 나날들을 同苦同樂하면서 서로 慰勞도 하고 더러는 不平도 쏟아 놓아 보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人間의 弱點, 弱點, 弱點까지도 어느 程度는 느껴 알게 되어 더욱 意義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協會側에서도 한분은 늘 나와 제서서 出席狀況을 把握해 주셨고, 閑談도 서로 나눌 機會가 있어서 親舊가 될 수 있었다.

또한 協會의 崔根滿總務部長께서 가끔 나오셔서 그 謙虛한 가운데 은근하고 구수한 말씀으로 여러 面으로 慰勞와 激勵을 해주어서 펴 고마운 印象이었다.

南山圖書館側에서도 館長 以下 全職員되시는 분들이 受講生들을 爲하여 갖은 便宜를 보아 주었고, 視聽室에서 映畫도 여러차례 보여 주어서 疲勞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